



축산정보



돼지 사육두수 사상최고

모돈수는 전분기대비 감소
가구당 사육두수 큰 폭 늘어

돼지 사육두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965만9천두로 2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분기 946만2천두 대비 2.1%(19만7천두)가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 3.1%(29만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돈수는 101만3천두로 전분기 102만2천두보다 9천두인 0.9% 감소하고, 전년동기 100만6천두보다 7천두인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총 사육두수는 증가한 반면, 모돈수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돼지 사육두수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월령별로는 2개월 미만인 303만7천두, 2~4개월 304만7천두, 4~6개월 252만6천두, 6~8개월 8만2천두, 8개월 이상이 96만7천두로 조사되어, 6~8개월령 이상이 3개월 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9만9천두, 충남 176만2천두, 경남 118만두, 경북 115만3천두, 전북 110만7천두, 전남 91만6천두, 충북 56만6천두, 강원 46만1천두, 제주 43만3천두로 조사됐다.

한편 사육 가구수는 1만200여 가구로 3개월 전보다 300 가구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00가구가 줄었다. 이 가운데 1천두 미만 사육 가구수는 7천100 가구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감소했으며, 1천두 이상 농가는 변동이 없었다. 가구당 마리수는 944두로 전분기대비 5.2%, 전년동기대비 15.4%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등뼈 재검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지난 9월 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9월 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618상자) 검역 결과, 1상자(30.31kg)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 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0월 5일부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가축방역 협의회가 열리는 외중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검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돼지사양표준 개정 추진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외국자료 보완 등 구체화

한국 돼지사양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월 5일 축산과학원에서 개최됐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2002년에 제정한 한국가축사양표준을 개정키로 하고 그동안 5차까지 협의회를 거쳐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외국자료 등을 참조 인용하여 현재의 사양표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양돈인이 모두 쉽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NRC, 유럽사양 표준내용을 비교 정리하는 한편, 사료성분표에도 한국사료협회를 비롯한 미국대두협회 자료를 참고 인용할 계획이다.

또 영양소 요구량 고려사항에 항생제 대체제 및 사육규제 등의 내용을 삽입하고, 성장단계의 체중구분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다시 구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

양표준 개정을 통하여 양돈농가에 보다 적합한 사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돼지 3종 전염병 이동제한 풀려야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PED(돼지유행성 설사병), TGE(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2종 전염병이 3종 전염병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 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어 이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양돈협회는 지난 10월 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에서 돼지 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1종과 2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와 폐쇄명령 조치가 함께 취해지나, 3종 전염병은 폐쇄명령 없이 이동제한 조치만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3종 전염병은 예방접종 등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살처분은 적용되지 않고 이동통제만 받아 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돈업계는, 그동안 농가들이 이들 전염병을 3종으로 분류해달라고 한 것은 이들 질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축장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음을 감안하여 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 · 정부 · 수의사 돼지열병 근절 인식 공감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의식과 수의사의 협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확립되어야 하는 등 관련 분야별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0일 경기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돼지열병 방역정책 및 근절방안에 대한 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양돈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상진 역학조사과장은 '돼지열병 발생역학과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는 축산업 발전과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초석"이라며 "농가에서는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갖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하고, 임상 수의사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역원 바이러스과 김병한 수의연구관은 "최근 3년간 항체검사에서 항체양성률 80% 미만의 농가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전체 양돈산업 보호차원에서 조기신고 및 적절한 방역정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유 전 접종법 등을 실시하는 등 농가의 의식 전환과 민간전문가 및 양돈관련 단체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정부의 일관된 근절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영 수의사는 2007년 하반기 양돈산업의 최대 과제는 종돈장 PRRS 청정화 사업과 돼지열병 청정화사업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며, 돼지열병 청정화 7개년 계획으로 ▲1단계(2007~2008. 2)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계획 제안 및 수립 ▲2단계(2008~2009) 유전자 재조합 백신 일부지역 상용화 ▲3단계(2009~2010) 유전자 재조합 백신 전국적 사용 ▲4단계(2010~2012) 유전자 재조합 백신 중단지역 선정 ▲5단계(2013) 전국적 수준에서의 돼지열병 청정화를 제시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최대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추석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화 제

한국축산진흥회, 든든한 농가 기술자문역 화제

가축 기술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이 탄생하여 FTA와 소모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어 화제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축산진흥회(회장 이수헌)이다.

한국축산진흥회는 축산과학원의 전신인 축산시험장, 국립종축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축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전문가 그룹으로 축산업 세계화에 맞춰 열린 경영 / 기술 축산을 표방하며, 양축가들에게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헌 회장은 “수십년간 연구현장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축산진흥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심있는 양축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 부문

가축개량, 고생산성사양, 유기축산물생산, 브랜드경영, 친환경시설, 축산물가공, 방역위생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번지 축산과학원내

• 홈페이지 : www.nlri.go.kr/cjh

• 전화 : 031)290-1506, Fax : 031)290-1598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돼지고기 둔갑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체 12,93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9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190명을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25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 사범이 45건, 이어 수입 쇠고기 둔갑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돼지고기는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축산과학원, 폐사축 처리기 개발

폐사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기가 개발됐다.

축산과학원은 최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을 진공상태를 이용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를 개발 / 특허 출원을 받았다.

이 처리기는 각종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고압스팀으로 가열, 완전 살균 처리하는 동시에 진공 상태로 폐사축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일러를 가동, 스팀 찜 방식으로 처리하던 기존 폐사가축처리기에 비해 직접 동물사체처리드럼을 가열함으로써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특히 자동으로 조작해 관리가 쉽고 비용부담이 적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돼지고기 선물거래 연내 개설될 듯

돼지고기 선물거래가 이르면 올해 연말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이달 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내 입법예고가 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1월에 돼지고기 선물거래 시장 개시를 승인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선물시장 첫 거래는 11월 금감위 승인과 약 한 달간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시험 가동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육 구입 시 가격보다 품질”

농진청 소비자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구입 시 품질과 신선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1천1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를 살 때 가격보다 품질을 따지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돼지고기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품질 32.1% △신선도 22.2% △안전성 18% △가격 10.4% △고기 부위 8.9% △영양가 5.3% △기타 3.1%로 답했다.

또한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안전함 1.1% △안전한 편 11.6% △보통 21.6% △안전하지 않음 45.4% △전혀 안전하지 않음 12.7% △모르겠음 7.1%로 답해 58%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사료 생산량 “증가세”

양돈사료 생산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8월 양돈사료 생산량은 43만6천301톤으로 지난 6월 41만2천927톤, 7월 42만7천887톤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같은 달 42만톤과 비교해 4%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총 생산량도 348만1천86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1만1천여톤보다 5.2% 증가했다.

한편 용도별로는 짓먹이돼지 2만3천828톤, 젓뎀돼

지 12만1천40톤, 육성돈전기 12만8천367톤, 육성돈후기 5만5천944톤으로 나타났으며, 비육돈은 6천679톤, 비육돈출하 1만536톤, 번식용수돼지 912톤, 번식용암돼지 1천66톤, 임신돼지 5만1천74톤, 포유돼지 3만6천855톤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부산물도 잔류물질 검사

돼지 뼈나 내장 등 돼지고기 부산물에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고시를 통해 식품공전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없는 식용동물 부산물에 대해 해당동물의 근육(고기)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내장, 뼈, 껍질 등 부산물에도 돼지고기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이 적용된다.

돼지고기 재고량을 최저

8월 2만톤 전월비 17% 감소

돼지고기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올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8월 돼지고기 재고량은 1만9천600톤(추정치)으로 전월 2만3천700톤에 비해 17% 감소하면서 금년 들어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해 동월 1만5천여톤에 견줘서는 32%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위가 전월비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인기부위인 삼겹살, 목등심은 5개월 연속 줄었다. 각각의 재고는 2천703톤, 1천65톤으로 7월 3천톤, 1천400톤 대비 각각 14%, 25%가 적게 쌓였다. 또 연초(각 5천600톤, 2천톤) 대비 절반 이하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갈비 역시 8월 3천400톤이 재고로 남아 한달 전 4천400톤 대비 22% 가량 감소했다.

수출부위의 경우 안심 462톤, 등심 1천400톤, 전지 4천700톤, 후지 4천500톤으로 전달에 비해 각각 18.6%, 34.2%, 6.4%, 19.3%가 줄었다.

중돈수입두수 크게 줄어

3분기 중돈 수입 두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 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중돈 수입 두수는 333마리로 2분기 594마리에 견줘 44%, 작년 동기 739마리에 비해 55%가 각각 줄어들었다. 이로써 9월까지 중돈 수입 두수는 1천142마리로 작년 동 기간 1천647두 대비 31% 감소했다.

또한 9월까지 품종별 수입 두수를 보면 △버크셔 7두(수7) △랜드레이스 199두(암143 수56) △요크셔 565두(암495 수70) △듀록 371두(암73 수298)로 집계됐다. 나라별 수입 두수로는 미국 283두, 캐나다 606두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돈수입두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중돈수입두수가 많은 데다 향후 돼지 값 약세 전망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업체들이 수입 두수를 조정할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돼지 폐사 감소

지속 늘던 돼지 폐사두수가 9월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사육두수 감소요인 가운데 폐사두수가 70만8천두로 전분기 72만3천두와 견줘 1만5천두(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사두수는 전분기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 왔다.

이에 따라 폐사두수는 전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만3천두(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출하두수는 479만4천두로 전분기대비 4만5천두(0.9%), 전년동기대비 21만2천두(4.6%) 각각 증가했으며, 생산두수는 492만8천두로 전분기대비 5만3천두(1.1%), 전년동기대비 8만3천두(1.7%) 각각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량 올해 최저

9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

다. 9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돼지고기는 총 1만679톤으로 지난 7월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1만6천41톤보다 적은 양을 기록해, 전월대비 38.6% 크게 감소했다.

또한 3분기(7~9월) 수입량은 총 4만4천104톤으로 지난 1분기(1~3월) 8만2천603톤, 2분기(4~6월) 6만6천108톤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총 수입량은 19만3천731톤으로 지난해 총 수입량 21만톤의 92% 비중을 차지해 작년과 견줘 크게 증가했다.

동물약품 안전관리 강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등이 같더라도 효능효과, 용법용량, 휴약기간이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심사 서류에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자료, 국소독성시험자료 및 피부감작성 시험자료를 신설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위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평가회 가져

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7)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제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남호경 박람회 대회장(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 박람회 출품업체 관계자들과 공동주관단체 실무 담당자, 박람회 대행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박람회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비했던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봉**